



## 충남대학교 인터넷침해대응기술연구센터 정보보호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다

정보보호 벤더를 비롯해 정보보호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제품 개발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된다. 이는 정보보호 벤더나 정보보호 제품 수요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지역별로 정보보호 연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고, 또 의미있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정보보호 분야에서 ITRC 지원대상인 5개 대학기관 중 3곳은 지방 대학 연구소가 차지하고 있다. 그중 충남대학교는 지난 2003년 인터넷침해대응기술연구센터를 설립, 각종 침해사고에 대비한 연구개발을 통해 최상의 연구 성과를 내놓고 있는 곳이다.

정보보호뉴스 취재팀

충남대학교 인터넷침해대응기술연구센터(Internet Intrusion Response Technology Research Center)는 지난 2003년 8월에 설립, 6년간 연구활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들 센터의 운영현황 중 가장 특이한 점은 충남대학교 교수진과 대학원생 60여명은 물론, 고려대학교, KAIST 등 8개 대학교 10명의 교수, 그리고 국내외 인터넷 정보보호 관련 벤더 15개사의 전문가가 함께 협력하고 있다는 점. 전문가라면 누구와도 협력해 최상의 연구결과물을 내놓게다는 이들의 의지가 있기에 가능하다.



### “연구개발, 협력이 최선이다”

충남대학교 연구센터는 그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 인터넷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기술개발이 가장 큰 강점으로 손꼽힌다. “전문 인력이 결집된 대학을 해킹·바이러스 대응기술 연구센터로 지정하는 한편, 이를 중심으로 산·연·관 협력을 통해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핵심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선결

과제였죠.” 충남대학교 인터넷침해대응기술연구센터 류재철 교수는 연구센터의 설립배경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런데 연구센터가 설립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이후 기술이전 8건을 비롯해, 상품화 9건, 국내외 특허 등록 36건, SCI급 연구논문 119편 등 충남대 연구센터의 연구성과는 봇물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특히 8건의 기술이전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 이들의 연구결과는 실제 정보보호 제품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자랑거리다. “해외에서는 정보보호 업체들이 대형화되고 통합된 제품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죠. 때문에 우리 현실에 맞게 산업계와 학계가 함께 공동의 연구를 지속해야 한다고 봐요.” 류 교수는 여기에 해킹 바이러스 기술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미치지 못하는 전문인력의 공급 비율이 더욱 높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 밤을 잊은 연구센터

충남대학교 연구센터는 정보보호 기술을 토대로 코어망 및 액세스 망에 대한 보안뿐만 아니라 무선 망에서의 공격탐지와 예측, 모니터링을 위한 네트워크 차원의 정보보호 기술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보다 안전한 대학 망 구축을 위한 ‘e-Secure University’ 사업을 함께 전개해 나감으로써 이론과 실체가 대학 내에서 병행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도 눈에 띄는 점이다. “고성능 NP(Network Process) 기반의 네트워크 보안 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사용자 보안에 최적화된 네트워크 성능 분석기술, 소규모 네트워크 보호를 위한 보안 어플라이언스 개발 등이 대표적이죠” 라는 류 교수는 핵심 기술들은 개발 초기부터 관련 기업의 요구 및 의견을 반영해 산업계가 기술이전을 원하도록 연구를 진행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 연구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했다고 한다. 그 결과가 산업체들의 높은 기술 이전으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이처럼 충남대학교 연구센터의 연구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오고 있는 류 교수지만, 앞으로 할 일은 더욱 많다고 한다. “저희 센터가 산학협력 중점 센터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제특허를 비롯해 기술이전 숫자가 더욱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를 위해서는 산학협력이 필수적이고 또 그에 따른 인센티브도 커져야 한다고 봐요.” 특히, 연구결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타 연구기관에 의한 검증은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국내 산업체와의 교류뿐만 아니라 외국기업과의 교류 및 국내외 정보보호 제품 평가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 연구기술의 국제적인 상품화를 이뤄야 한다고 류 교수는 강변한다.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깊이 있는 연구와 산업체가 요구하는 기술의 상품화. 여기에 정보보호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본연의 임무까지. 충남대학교 인터넷침해대응기술연구센터의 연구 활동은 밤을 잊은 지 오래다. **S**

“침해사고 대응기술이 한 단계 성장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산학협력체계를 넘어 더 많은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이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국제적인 교류도 활발해져야 하죠.” 충남대학교 인터넷침해대응기술연구센터 류재철 교수는 국제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한 협력활동은 현재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